

# 광주·전남 소아외과 교수 단 1명...의료 공백 우려 크다

광주 맹장염 3세아 대전 원정으로 본 지역 의료 실태

높은 근무강도·낮은 수입에 비인기 과목 기피...피부과·성형외과 쏠림  
30분 걸리는 쌍꺼풀 수술과 5시간 걸리는 뇌동맥류 수술 의료수가 같아  
대형병원도 외과계 의사 부족...의료수가 조정 등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소아·청소년 외과 수술을 맡는 '소아외과' 담당 교수가 광주·전남에 단 한 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맹장염 수술이 필요한 세 살배기 남아가 광주에 선 수술을 맡을 의사를 구하지 못해 200km 떨어진 대전 충남대병원으로까지 '원정' <광주일보 2022년 8월 16일 6면>을 떠난 데는, 대학병원 등 소위 대형병원에조차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분야 의사가 아예 없거나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은 소아외과 뿐 아니라 흉부외과,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의 상세정보를 확인한 결과, 전대병원에는 모두 278명의 전문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비인기 진료과로 알

려진 흉부외과 전문의는 5명(1.7%), 산부인과 9명(3.2%), 외과 21명(7.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소아청소년 외과 수술을 맡는 전문의는 담당교수 단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대병원 측 설명이다. 해당 교수가 자리를 비우면 전대병원에서 소아외과 수술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의 경우 주·야간 당직을 서며 환자를 보려면 의사가 5명은 최소 있어야 하는데, 휴가 및 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병원을 비울 때 곧바로 '진료 공백'이 빚어지는 셈이다. 조선평 병원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이 병원에는 모두 168명의 전문의가 있는데 흉부외과는 3명(1.7%), 산부인과 5명(2.9%), 외과 11명(6.5%)에 그친다. 광주기독병원도 흉부외과 전문의 1명, 산부

◇ 비인기 과목 전문의 현황 보니

- 전대병원-흉부외과 5명·소아외과 1명 산부인과 9명
- 조대병원-흉부외과 3명·산부인과 5명
- 기독병원-흉부외과 1명·산부인과 2명

인과 2명, 외과 6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대형병원조차 소아외과 수술을 맡을 의사가 없고, 나머지 주요 과에서도 결원이나 휴가자가 나오면 환자 대응은 어려워지는 구조다. 조선평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도 몇 년 전까진 소아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젠 퇴직한 이후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광주·전남 전체에서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대병원에 딱 한 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각을 다루는 응급환자를 돌보는 소아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에 의사가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해묵은 문제로 꼽혀왔지만, 이처럼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선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노동강도는 센 데 수입은 낮기 때문"이라며 의료수가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센데 수입이 적다 보니 지역 대형병원조차 흉부외과 등에서 매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선발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전남대병원조차 올 2월 보도 자료를 내고 "채용시스템 혁신으로 비인기과를 포함해 인턴 정원을 모두 채웠다(91명 모집에 96명 지원). 10여 년 만의 일이다"는 입장을 낼 정도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고 평가되는 과목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모집에는 의과대학생들이 앞다퉈 지원서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초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피부과(지원율 163.8%), 안과(176.8%), 성형외과(171.8%) 등은 정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제형 광주시의사회 공보의사는 "일각에선 의대 정원 증원만 언급하지만, 근본 처방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외과 분야에서 특히 소아외과,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분만 분야 등 의사들이 근무하기 꺼리는 '기피과' 현상에 대응해 수가 조정 등 근본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30분 걸리는 쌍꺼풀 수술과 5시간 걸리는 뇌동맥류 수술 수가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의료 사고 등 분장 위험까지 고려하면 누가 기피 과에 지원하겠느냐"는 하소연도 이어진다. 김윤하 전남대 산부인과 교수도 "전공의 과정을 선택할 때부터 개원 이후 수입 구조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추세"라며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전공의 때부터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정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의 국가 보장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필수 의료분야 진료 수가 현실화 ▲지역 필수의료 육성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바 있다. 지역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선 ▲광주의료원 조기 신설 ▲의사 정원 확대 및 전남권 의대 신설 ▲특정, 특정 지역 복무를 조건으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공백 해소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응급환자 이송 체계 점검 나선다

환자 타지역 잇단 이송에 19일 조선평병원서 대책회의

광주시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에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10시 조선평병원에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광주 대형병원 등이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 "병실이 꽉 찼다"며 환자를 말지못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안이 잇따라 '광주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광주시 감염병관리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구조구급과, 5개 자치구 보건소, 응급의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히 응급의료 관계자는 전남대·조선평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내 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권역의료센터가 수용이 불가능 할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사전에 검사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건강복지국 담당자는 "지역내 응급환자 이송에서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중산책' 우산을 쓴 시민이 16일 광주시 남구 노대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까지 광주·전남에 10~60mm의 비가 내리고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30~1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준공인가 전 아파트 점등행사...복구, 고발 방침

준공인가가 나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점등행사를 개최한데 대해 자치구가 고발방침을 정하면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우산구역 주택재개발 신축 아파트에서 진행된 점등행사 주최 측인 입주예정자와 재개발조합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입주예정자와 조합측이 지난 10일 오후 신축 아파트단지 내부에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과 기념행사를 펼치면서 준공인가나 사용승인 전에 아파트 내부를 사용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주택법상 사용 의미를 '실거주'라고 좁게 해석

하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실제 건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북구의 설명이다. 한편 이 아파트는 입주를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공정이 낮아 입주지역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북구는 조합측에 공문을 보내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준공인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완공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조합측이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이번 달 말께 계획에 따른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인터넷 방송하며 청소년 신체 몰래 촬영 성착취물 영상 100여개 만든 20대 구속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만난 여아를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촬영·소지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해 10월 13~16세 여자 아동·청소년 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영상을 소지한 A(2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드립'(성적인 농담)

을 주 콘텐츠로 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피해자들과 만나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들은 A씨와 같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별도의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A씨의 시청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뒤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녹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휴대

전화에서는 100여개가 넘는 성 착취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영상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가출한 13세 여아를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꼬드긴 뒤 성폭행해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에 의한 아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마사지 업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